

2016년  
교회 여·남평등 주간

“성폭력과 힘의 악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목 차

1. 취지문
2. 주제해설문  
“교회 여성과 성폭력 문제”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장 정희성 교수
3. 참회와 결단
4. 우리의 기도
5. 여성시편
6. 성서묵상
7. 참고자료

## “성폭력과 힘의 악용”

교회협 제48차(2000년) 총회는 여성위원회의 헌의를 받아들여 UN 세계인권선언 일(12월 10일)이 있는 주간을 “교회여남평등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매년 이 주간에는 여성인권 주제 혹은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선정해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최근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고민하려 합니다.

교회여성들은 꾸준히 교회내 성폭력 범죄 해결과 예방을 위해 고민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의 발생, 문제의 해결,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 예방교육 어느 과정에서든 교회 공동체는 성폭력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 전(“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 1999년), 13년 전(『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 여신협 기독교여성상담소, 2003년) 여성들의 고민과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를 고발하지도 못하고 온 삶이 찢긴 채 신앙공동체를 떠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가해자를 고발한 이들이 오히려 교회공동체로부터 지탄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고발하는 피해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전도유망한 남성 가해자(대부분의 경우)의 앞길을 막는 불신앙자로 취급당합니다. 진상조사와 처벌,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와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불의요 죄악입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자정능력을 발휘하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법적·제도적·문화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성찰과 개혁을 통해 건강해지기보다,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교회 스스로 문을 닫아걸고 자멸해가는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은혜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를 숨기고 덮고 감싸주려는 관습을 바꾸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내 성폭력 범죄는 교회와 교단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와 전담기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근절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침해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아가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악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행위입니다. 여성위원회는 교회의 성폭력 문제가 단순한 성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회내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힘의 악용’과 가부장적 성차별, 권위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교회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의 악용을 직시하고,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교회개혁을 이루고, 한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올해 교회여남평등주간은 2016년 12월 4일(일)~10일(토)입니다.

# 주제해설문

## 교회 여성과 성폭력 문제

정희성 교수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장)

### I.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목회에 나섰던 미국의 한 여성 목회자는 첫 목회현장에서 자신의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 교회 단상에 섰을 때 저는 창문너머 파란 하늘과 반짝이는 초록 나무들, 또 한가로이 움직이는 차와 거리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교회 안의 교인들이 이처럼 평화롭고 다정해보여도 실상 가정에서 심한 폭력으로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목회자가 급증하며, 설교나 공적행사에 관심 많은 남성 목회자와 달리 여성 목회자들은 상담이나 심방을 통해 교인들의 내밀한 일상의 이야기에 많이 관여했다. 이에 여성 목회자들은 겉보기에 평탄해 보이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학대에 노출되어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유래 없이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짓기에 골몰하는 현대 한국 교회 역시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발생건수는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을 포함해 2004년 11,012건에서 2014년 29,517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비율도 2배로 증가했다. 또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종교별 성범죄자 통계의 경우, 개신교 신자가 2,17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불교신자 1,405건, 그 다음이 천주

교 신자 522건 순이었다. 또 전문 직업군 중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업군 1위가 바로 목사였다. 실제 성폭력을 경험했어도 신고를 거리키는 성폭력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 정도만으로도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성폭력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사업가나 의사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한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미 일반 전문가와 비교할 때 목회자나 기독교 전문가가 자신들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학자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가장 먼저 관심해야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폭력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되며,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 편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천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교인가운데서 일어나는 성폭력 대해 말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 II.

성폭력은 간단히 말하자면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추근거림, 또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폭력 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여성의 인지로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았어도 피해 여성이 성폭력 혹은 성희롱으로 지각하면 문제가 된다. 이론적으로 남녀 모두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으나 현재 한국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교회 여성의 경험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교회 여성이 앞서 정의한 여러 가지 성에 관계되는 강제행위를 당하는 것이다. 즉, 교회 여성이 자

신의 직장, 가정, 사회 활동 속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인 성적 행위, 성희롱, 성적 대상화를 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의 신조나 믿음체계 때문에 교회 여성의 성이 수탈당하고 도구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일어나며, 물리적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신앙이라는 심리적 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교묘하게 침해당한다.

그런데 교회 여성 성폭력은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달리, 무엇보다 '근친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성폭력이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그 관계는 영혼의 아버지와 신앙의 자식이라는 맥락에서 보통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 심리적 역동이 아버지와 자녀간 근친간과 유사하다. 가령,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교인은 목회자의 요구가 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교회 여성이 직장이나 가정 혹은 기타 사회관계에서 일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도 근친간간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분위기에서 교회 여성 다수는 성에 대한 극심한 억압과 성 정보에 대한 무지 상태에 있어 성문제에 관해서는 심리적 유아상태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보수교회의 여성이 경험한 일반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근친간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문제에 있어 심리적 유아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하였건 성폭력에 신학적 이해가 관련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성폭력의 경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성폭력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거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또 고용관계에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경우도 위계나 위력한 추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 이유로 인한 피해자의 교묘한 심리적 종속상태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교회 목회자와 교인, 혹은 교회 여성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부분 화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신적 마취 혹은 세뇌상태에서 깨어나 성폭력임을 알게 될 때까지 법정고소시간 기간을 넘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III.

교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가부장제와 자본 중심 사회에서 강화된 왜곡된 "힘의 악용"이다. 성폭력은 얼핏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로 보이나 사실 가해자의 선택 자체가 사회분위기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한다. 즉 사회의 가부장제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자본과 결합하여 가해자의 성폭력 행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하류층 남성들은 자신들이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도태되어있고 힘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하류층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적 힘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힘 있음,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직 남성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과 힘의 끝없는 추구 속에서 발생하는 좌절과 낙망 속에 이들 역시 여성을 그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사회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전통 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사회는 비교적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성은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의 성적 폭력에 여전히 노출되어있다. 이는 바로 성폭력에 관해서 공적영역의 변화는 활발히 일어났으나 감정적이고 영적 영역의 변화는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깊이 뿌리박힌 감정적, 영적 측면에서의 급진적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영적 차원에서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하나님-언어, 하나님 이미지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남성으로 이해하여, 교회 여성이 자신보다 남성인 남편, 남성동료, 혹은 남성 목회자와 더 우위에 있다고 믿게 한다. 그래서 성폭력 상황에서도 교회 여성은 하나님이 혹 이들 남성 편에서 개입하실 수도 있다고 믿으며 저항하지 않거나 무기력함 속에서 성폭력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가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 자신의 고통을 낭만화시키거나 자신의 치우에 앞서 성폭력 가해자를 먼저 용서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님-언어와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급진적 방향전환이 성폭력 문제의 영적 해결에 중요한 것이다.

#### IV.

결론적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 남성과 교회 여성,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동등함을 인식해야한다. 창세기 1장 창조이야기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인간은 젠더와 관계없이,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때문에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그것이 교회의 영역이든 일상의 영역이든 혹은 성의 영역이든, 상호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또 바울 사도 역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인지 하나라고 했다(갈 3: 28). 교회 여성의 성폭력 문제 해결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상호 동등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는데서 출발해야한다.

교회는 또한 성폭력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죄임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성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존엄한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불의한 행위이다. 교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개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성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게을리해왔을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해왔다. 그 뿐 아니라 교회는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용서 혹은 화해를 선불리 강요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용납하는 잘못된 신학전통, 성서해석, 교회의 구조와 관행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안팎에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해온 죄를 참회해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 - 교인간 성폭력에 대해 교회는 더 더욱 이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고백해야한다. 목회 현장에서 저질러진 목회자-교인간 성폭력은 역할 범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관계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교인보다 힘에 있어 항상 우위에 있어, 목회자-교인 간 성관계는 상호 경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목회관계 속 성관계는 성인 사이라 할지라도 상호 의미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철저히 목회자의 문제이며, 구체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항상 우리(목회자와 교회)의 책임”임을 알고 깊이 회개해야한다.

## 참회와 결단 우리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과 불의와 폭력,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성폭력에 대한 죄를 참회합니다.**

성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존엄한 인권에 대한 침해요, 불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불의요, 죄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폭력 범죄를 그치게 하고 피해자를 더 큰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참회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겪게 하며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하지 않았으며, 성차별과 성폭력이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부장제와의 유착을 끊어내는 교회개혁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性)에 대한 교회의 왜곡된 가르침과 가부장성으로 인해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되도록 한 교회의 잘못을 간과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깨어지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입 다물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용서와 화해를 강요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침묵을 조장하여 성폭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양성의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잘못된 신학전통, 성서해석, 교회의 구조와 관행을 문화적 폭력으로 고백하고 성차별주의를 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적 입장을 정립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폭력 근절의 과제를 교회 선교의 중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신학적 입장 표명과 구체적 행동강령을 반포하며, 신학교육 과정에 평등한 양성회복과 올바른 성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신처 등의 운영과 대안활동에 착수하며, 특히 기독교와 교회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실태를 밝혀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폭력을 극복하는 일에 신앙적으로 응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가해자에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결단합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중, 발췌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가 더 이상  
거짓 신앙으로 약자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그 길을 간 예수의 삶을 따르게 하소서.  
약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부장적 억압과 각종의 성폭력으로부터 고통 받아 온 여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우소서.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여  
신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물리적 힘으로 회유하고 억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을 설파하는 한국 목회자들의 위선을 도말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날선 검과 같이 불의를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의 삶으로 불어와 분별하는  
지혜와 결단하는 용기를 내도록 이끄소서.

성폭력으로 무너진 가슴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곤경에서 헤쳐 나오게 하시고,  
샘물 같이 솟아나는 기쁨과 송고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불의에 침묵해 온 교회의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질타 받으며 흩어진 지금,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구석구석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여성시편

## 여성시편 52편 성폭력당한 여성들의 호소

1. 하나님 강포한 자들이  
어찌하여 악한 일을 하고도 시치미를 뚝니까?  
그들은 어찌하여 순전한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태연합니까?
2. 그들은 속임수의 명수  
길목에 파리 뜬 뱀처럼 호시탐탐 여성을 노립니다.
3. 그들은 순수한 사랑보다 욕정을 더 즐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4. 그들은 간사한 혀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딸을 욕보이며  
무슨 것이든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며 우리를 유린했습니다.
5.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다며  
죄 없던 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것 없다는 말에 옷을 벗던 날  
우리 몸은 그들 장막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6. 사람들이 그들이 죄 값을 치루는 것을 보고  
“저 자는 하나님의 종임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욕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딸들에게 희롱과 폭력을 일삼던 자다.”  
하며 손가락질하기를 원합니다.
7.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폭력 당한 우리를 유혹자라 비난하면서  
있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8. 우리를 박해한 이들이  
하나님의 종 자리를 면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 여성시편 71편 성폭력 피해자들의 기도

1. 하나님, 당신의 등은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어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소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2.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저의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영원토록 약자 편에 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형편을 두루 살펴 주십시오.
3. 하나님은 어릴 적 내가 몰래 숨곤 하던 장롱 속처럼  
그렇게 비밀스레 나를 보듬어 주시고 숨겨 주십니다.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붙들고 하소연해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내 존재의 견고한 뱃줄과도 같습니다.
4. 세상의 모든 약자와 상처 입은 자의 하나님,  
내 삶이 더 이상 불한당 같은  
폭력배 놈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 주십시오.
5. 어려서부터 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여자답게, 암전하게 처신하며 살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사내들 눈과 마주칠까봐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미니스커트 한번 못 입고 빨간 루즈 한번 못 바른  
조신한 처녀가 바로 나였습니다.
6.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생생한 숨결에 젖어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십브라와 부아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받아주시는  
산파라고 믿었습니다.
7.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자위해도  
나를 향하는 손가락질들이 칼이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8. 과거를 변명할 수도,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 시간은 그 날 이후로 정지해 버렸으니까요.
9. 과거를 변명할 수도,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 시간은 그 날 이후로 정지해 버렸으니까요.
10. 착하기만 했던 내 삶이 송두리째 분열되고 파괴될 때  
조선의 순결이데올로기는 차라리 은장도를 슬며시 내미는군요.  
세상의 이중잣대가 나더러 '더럽다'고 침을 뱉는군요.
11. “너는 더럽혀진 몸이다. 감히 그런 물골로 성전 문을 넘어?  
어디 음탕스럽게스리. 거룩하신 하나님도 널 버렸으니  
너는 이제 우리 밥이다!”

12.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조성하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어여뻐 여기사 힘을 주십시오.  
어서 달려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13. 내가 잃어버린 것은 순결이 아닙니다.  
누구도 범접치 못할 존재의 온전성/거룩성/아름다움.  
당신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14.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바리새인들과 남성중심의 윤리, 제도...  
그것이 바로 내 아픔의 근원입니다.
15. 실낱같이 고개를 드는 새로운 희망 하나 -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입니다.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부디 세상의 온갖 편견을 모조리 거두어 주십시오.
16. 조개의 상처에 자꾸 딱지가 앉아 아물어가면서  
진주가 탄생하듯, 내 고통에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17.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며낸 일도 아니니까요.  
인생이란 어차피 모순투성이,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서러운 한(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을 등에 지고 한걸음 또 한걸음 떼며  
우리도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8.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19. 그러니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내가 떨쳐 일어나 반듯이 설 수 있도록 떠받쳐 주십시오.  
내 분노에 같이 떨며, 내 고독에 같이 외로워하는  
위로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나는 오고 오는 서대에 전하렵니다.
20. 당신은 해방과 평등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내 숨통이 트입니다. 내 인생에 비록 재난과 불행이 많아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고 놀려대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나의 기를 다시 살려 주셔서  
무덤 같은 시간을 박차고 소생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21. 나를, 윤강 당하고 갈기갈기 찢긴 레위인의 첩이나  
근친강간 당한 다윗의 딸 다말처럼 버려지지 마십시오  
내 삶을 전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 자빠지게 하십시오.

22. 하나님이 여는 새 세상, 하나님이 세우는 새 질서가  
 '이미/아직'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미 경험되었으나,  
 아직 이 땅에 편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에 내가 북 치고 장구 치며 맨발로 앞장서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러다가 지나온 세월에 속이 상하면  
 땅에 풀썩 주저앉아 주성지계 '한오백년'을 뽑으렵니다.
23. 하나님은 나의 웃음, 나의 눈물, 내 뉘드리도 달게 받아 챙기시는 분.  
 내가 짓밟힐 때 함께 계셔서 유린당하고,  
 내가 골백번도 더 죽음을 생각할 때 나보다 먼저 달려가 죽으신 분.
24. 하나님이 그 눈물로 내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딸아, 거룩하다!" 속삭이심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 노래합니다.  
 나를 수렁 속에 던져 넣고 내 불행만 노리던 자들,  
 한 번의 죽임으로도 성에 안차 두 번 세 번  
 나를 죽인 세상의 눈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성서묵상

## 에스겔 34장 11-16절

11.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12.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이,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13. 못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아 들여 본고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이 산 저 산으로 이끌며 시냇가로 인도하고 사람 사는 땅 어디에서나 기를 것이다.
14. 좋은 목장을 찾아다니며 기르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이 목장이 되면 그들이 좋은 목장에서 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 산 저 산에서 기름진 풀을 뜯기도 하리라.
15.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16.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 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 아멘

## 다윗의 딸 다말 강간 사건 (사무엘하 13장)

- 1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
- 2 그러나 다말은 아직 처녀여서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암논은에만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 3 마침 시므아라는 삼촌에게 요나답이라는 피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암논과 가까운 사이였다.
- 4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요즘 아침에 뵈을 적마다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그 곡절을 들려주십시오.” 암논이 대답하였다. “나는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소.” 이 말을 듣고
- 5 요나답이 한 꾀를 일러주었다. “병든 체하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부왕께서 문병 오시거든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어 음식 시중을 들게 해달라고 청을 드려보십시오. 다말이 음식 차려주는 것을 보고 싶고 그 손에서 받아먹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 6 암논은 자리에 누워서 앓는 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이 문병 오자 청을 드렸다. “아버님,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다말이 제 앞에서 떡 두어 개 손수 구워주는 것을 받아먹고 싶습니다.”
- 7 다윗은 다말이 사는 궁으로 사람을 보내어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환자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일렀다.

8 다말이 오라비 암논의 궁으로 가서 보니 그는 정말 누워 있었다. 다말은 오라비가 보는 앞에서 떡가루로 반죽을 개어 환자가 먹을 떡을 빚어 구워냈다.

9 그리고 구운 떡을 오라비 앞에 차려놓았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방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시중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10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떡을 이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네 손으로 먹어다오.” 다말이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오라비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서

11 그에게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다말을 끌어안고 같이 자자고 했다.

12 “오라버니, 이렇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욱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마십시오.

13 제가 이런 수치를 어디에 가서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바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버님께 저를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아무리 애걸해도 암논은 듣지 않고 억지로 다말을 눕히고 욱을 보였다.

15 그리고 나서는 다말이 몹시 싫어졌다. 욱을 보이고 나니 마음이 변해서 전에 사랑하던 그만큼 싫어졌던 것이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서 나가!” 하고 소리쳤다.

16 “오라버니,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를 내쫓으신다는 것은 방금 저에게 저지르신 일보다도 더 나쁜 일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지만 암논은 들은 체도 않고

17 시중 드는 하인을 불러 “이 계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문을 걸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18 하인이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다말은 시집 안 간 공주들이 입는 소매 긴 장옷을 입고 있었다.

19 다말은 머리에 먼지를 들쓰고, 걸치고 있던 장옷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 권 채 목놓아 울면서 돌아갔다.

20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래도 그는 네 오라버니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일로 너무 마음 쓸 것 없다.” 그 뒤로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21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22 압살롬은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이 동생 다말을 욱보인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23 그로부터 이 년이 지났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에브라임 근방 바알 하솔로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24 그리고는 어전에 들어가 청을 드렸다. “아버님, 이번에 소자가 양털을 깎는데 아버님과 대신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25 왕이 “압살롬아, 그럴 것 없다. 우리가 다 내려가면, 너에게 너무 폐가 될 게 아니냐?” 하며 사양하였지만 압살롬은 계속 간청하였다. 그래도 다윗은 갈 마음이 없어 너나 가서 잘 지내라고 하였다.

26 그러자 압살롬은 만형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왕은 암논이 무엇하러 가겠느냐고 했다.

27 그래도 압살롬이 굳이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보내면서 다른 왕자들도 팔려 보냈다.

28 압살롬은 대궐 잔치만큼 크게 차리고 부하들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암논이 술에 취해 거나해지면 내가 치라고 할 터이니, 그 때 암논을 쳐죽여라. 내 명령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침없이 해치워라.”

29 압살롬의 부하들은 시키는 대로 암논을 해치웠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 30 왕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 31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쓰러졌다. 곁에서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 32 이 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암논뿐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제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욕본 날부터 별러온 일입니다.
- 33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뜬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은 암논 하나뿐입니다.”
- 34 그 동안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한편 보조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호로나임 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35 그러자 요나답도 어전에 아뢰었다. “그것 보십시오. 소인이 말씀드린 대로 왕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 36 그가 막 말을 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 목놓아 울었다. 왕은 물론 함께 있던 신하들도 목이 메어 울었다.
- 37 왕은 아들 암논의 죽음을 두고두고 슬퍼하였다. 압살롬은 도망치는 길로 그술 왕 암미훗의 아들 탈매에게 몸을 맡기고
- 38 삼 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 39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

## 레위인 첩의 가혹한 죽음

사사기 19:1-2

- 1 이 말을 듣고 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목놓아 울었다.
- 2 이 소식을 누군가가 요압에게 전하였다. “왕께서 목놓아 울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9:25-29

- 25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한 날부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 26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오자 왕이 물었다. “므비보셋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소?”
- 27 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 종 녀석이 소인을 속였습니다. 소인은 임금님과 같이 가려고 종더러 나귀에 안장을 엮으라고까지 일렀었습니다. 소인은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 28 그랬는데 그 종이 임금님께 소인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시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29 저희 집안은 모두 임금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몸인데도 임금님께서서는 소인을 임금님과 한 식탁에서 먹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무슨 낱으로 임금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호소하겠습니까?”

사사기 21:10-12

10 아야의 딸 리스바는 상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퍼놓고 그 위에 앉아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주검을 지켜 낮에는 공중의 새가 내려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11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스바 이야기를 전해 듣고

12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메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벧산 광장에 매달아 둔 것을 그들이 몰래 거두어두었던 것이다.

### 야곱, 레아, 라헬 이야기 (창세기 29장 1절~35장 22절)

\* 성경참조



# 참고자료

##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

여성의 성을 도구로 해서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성차별문화에서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여성들의 인권옹호와 성 정의의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부도 성폭력을 3대 범죄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퇴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계 각층에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이를 위해 종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워야 할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성폭력을 추방하는데 앞장섬은 물론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핌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성직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실현을 종교의 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생겨나서는 안됩

니다. 성폭력을 행한 성직자가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한국교회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여성의 인권과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해 온 우리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회는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고 성폭력을 행한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도록 해야 한다.
2.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교회는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4. 목회자의 권위를 남용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 처벌해야 한다.
5. 각 교단총회에 성문제와 관련하여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6.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7.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

1999년 6월 21일

서울여성의 전화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 (개정증보판) 中 일부 발췌

### 1. 교회내 성폭력이란?

교회내 성폭력이란 교회나 기독교기관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부담임목사, 전도사 등)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 2.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

기독교여성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98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108건으로 강간 61건, 성추행 38건, 성희롱을 포함한 기타 사건이 7건이었습니다. 목회자 관련 성폭력 중 고소 사건은 9건으로 교단과 사회법에 모두 고소한 경우 4건, 교단에만 고소한 경우가 3건, 사회법에만 고소한 경우가 2건이었습니다. 사회법에 고소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3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은 사이버 종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사이버종파의 사례는 두 세

건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모두 정통교단에서 일어나며, 대체로 특정한 교단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내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당회장실, 예배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원이나 별도의 기도처, 피해자의 집, 차안, 때로는 러브호텔이나 여관, 호텔 등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 3.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 횟수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교회내 성폭력은 개인상담, 심방, 안수나 안찰, 입신 등의 치유행위나 종교체험을 빙자 또는 악용한 경우가 많으며,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수종위원제도나 안마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강제형, 성희롱형 :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접근하여 강간 미수한 경우/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심방 중에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2) 유혹형(결혼 빙자형) : 결혼을 빙자하여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접근하여 유혹하며 성농락한 경우/ 아내와 목회비전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라며 접근하여 성농락한 경우
- 3) 종교체험 빙자형 : 안수기도를 해주다며 성추행한 경우/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 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간한 경우/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추행하고 강간한 경우/ 성령체험(입신)을 빙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경우

- 4) **치유 빙자형** :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한 경우/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쫓아 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 5) **교육, 상담 빙자형** : 성교육을 한다며 청소년과 미혼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경우/ 홀로사는 여신도를 상담해준다고 불러내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여 임신케 한 경우
- 6) **협박형** :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경우
- 7) **기타** : 여신도들에게 담임목사에게 충성을 맹세케한다며 입고 있는 목사의 와이셔츠에 입술도장을 찍도록 한 경우/ 교회 재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경우

#### 4. 교회내 성폭력의 특징

- 1) 교회내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의 지도자와 신도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
- 2) 교회내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목회자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영적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와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 3) 교회내 성폭력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목회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 4) 교회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다. 증거가 없어 처리가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다. 여성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며, 증거를 보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자신이 농락당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실을 했을 때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버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교단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중재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장애가 된다는 핑계로 문제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현재 목회자 성폭력을 대하는 교단과 교회의 정서이다.
- 5) 교회의 분파 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정죄되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6) 교회내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여성이 한 교회 안에서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 7)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 피해 여성이 자신이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신앙적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의 종, 영적 아버지라고 믿었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주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의 종을 용서하라는 주위의 강요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 했을 거라고 자책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좌절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마귀라고 비난하는 가해자나 교인들의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더 절망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신앙적 위기는 일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피해를 넘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고, 교회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 8) 교회내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거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한다. 교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교회공동체는 분란에 쌓이게 되고, 교인들도 서로에 대해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면 분쟁이 휘말리게 된다.

## 5.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서 오용의 예

- 1)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부인이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 너는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 2) “에텐동산이 어떤 곳이나? 그곳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다. 대답하면 영적인 사람은 별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 3)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있으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 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별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욕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 4) “솔로몬이 2천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나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 5)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
- 6)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있었듯이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돕는 배필은 아니다.

## 6.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이후 목회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들

가해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해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피해자를 비난한다.

- 1) “다윗을 책망한 미갈은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주의 종의 말

을 안 듣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 2) “피해자는 음란 마귀가 씌어 목회자를 모함하고 있다.”
- 3) “여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 7. 교회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

### 1) 목회자 개인이 할 일

- (1) 목회자 자신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홀로 심방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 (2)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적인 욕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리 될 수 있어야 한다.
- (3) 목회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여성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 하거나 남성들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 (4)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자원-예를 들어 선배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신도들이 할 일

-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사를 표시한다.
- (2) 상담이나 심방 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될 경우를 삼간다.
- (3)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4)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 둔다.
- (5)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 3) 교회가 할 일

- (1)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 (2)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 (3) 각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
- (4) 각 교단은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5)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 (6) 교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 8. 목회자의 성폭력에 내재하는 여러 형태의 역동성

- 1) 자기 중심성 자기애적 성향
- 2) 통제력의 환상
- 3) 부정직과 부인(denial)
- 4) 망각
- 5) 의존성
- 6) 방어적임, 남의 탓하기, 무책임성
- 7) 터널 비전
- 8) 윤리의식의 쇠퇴를 가져옴.

## 9. 교회내 성폭력과 근친강간의 유사성

- 1) 힘의 불균형

- 2)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가깝고 접촉이 잦은 관계
- 3) 피해자가 겪는 수치감과 죄책감
- 4) 가해자의 비밀 엄수 요구
- 5) 극소수만이 드러남
- 6) 가해자의 잘못이 드러나도 피해자가 얻을 것이 없음
- 7) 남성 가해자의 배우자가 묵인하거나 방치함.
- 8)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는 가해자를 목회자로 대우해야 하는 상황

## 10. 여신도가 교회내 성폭력에 있어서 취약한 이유

- 1) 여성은 남성보다 복종적, 수동적, 의존적, 감정적, 동조적이며,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물론 이런 경향은 사회화되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심리적 성향 때문에 여성은 더욱 종교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동조적이거나 복종적일 수 있는 여성의 경우 감정적 교류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쉽게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 2) 여성은 사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성차별로 인한 박탈감을 보다 크게 느끼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교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런 취약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진다.
- 3) 여신도들이 목회자들을 신격화하며 숭배하는 성향이 많은 점 또한 여신도들이 교회내 성폭력에 있어서 취약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여신도들은 남성 목회자를 바로 인지하여야 하며, 목회자를 높은 계단에서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한계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자존감을 높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출간물>

1. 성폭력과 기독교
2.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이야기-교회청소년 성교육 교재 교사용
3. 깨어진 침묵-성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응답
4.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5.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인터넷 여성상담
6. 미혼여성 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출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